

제 3 회

# 송 · 실 · 철 · 학 · 강 · 좌



강사: 김 태 길 교수

(학술원 회원,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제목: 생활인의 철학

1999년 11월 18일 (목) 오후 5시

송실대학교 과학관 103호

주최: 송실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후원: 송실대학교 철학과 동문회

## 생활인을 위한 철학

김 태 길 교수

(학술원 회원,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1. 두 가지 철학 : 직업 철학자를 위한 철학과 생활인을 위한 철학.
2. 철학함을 통해서 얻은 지혜가 생활인을 위한 철학이다. 철학함이란 절실한 문제에 대한 사색 행위를 말한다. 절실한 문제라 함은 철학적 문제이다.  
— 철학적 문제의 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신당(新黨)에 참여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3. 철학적 사유의 특색: 1) 깊이 생각한다, 2) 넓게 생각한다, 3) 논리에 맞도록 가장 바르게 생각한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겠다는 의지, 값있는 삶에 대한 의지이다. 값있는 삶이란 무엇인가?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을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 선철(先哲)들의 고전에 묻게 된다. 그러나 선철(先哲)들의 대답도 여러 가지이다. 마지막 대답은 나의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5. 결국은 정답을 얻을 수 있는가? 정답을 얻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 왜 그런 고생을 하는가?
6. 철학적 사유 가운데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넓게 생각함이다  
· 대인(大人)의 길과 소인(小人)의 길
7. 전문적 철학자의 철학도 그 기원은 생활인을 위한 철학이다.  
·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  
· 소크라테스의 생활 철학  
· 공자 또는 석가모니의 사상
8. 철학이 빈곤한 현대 한국인: 한국인에게 철학이 빈곤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에게 지성 logos보다 감성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 감정 우세의 장점과 단점
9. 삶의 과정은 문제와의 대결 과정이다.  
· 삶의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  
1) 자연과의 만남에서 오는 문제  
2) 인간과 인간의 만남에서 오는 문제
10. 철학이 있는 한국과 철학이 없는 한국
11.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문화의 뿌리는 넓은 의미의 철학이다.



### 제 3 회 승실절학강좌 행사비용 결과 보고서

행사일 : 1999년 11월 18일 오후 5시

행사 장소 : 과학관 103호

월 일	지출 내역	지 출	비 고
11월 9일	초청장 및 봉투 제작	70,000	학과
11월 10일	공문 복사	12,440	
	공문 발송	80,530	
	식대	10,000	학과
11월 18일	공문 복사	10,000	학과
	음료 및 문구류	10,000	학과
	강연료	200,000	
	식대	95,000	
	필름 및 인화	2,500	
	주차권	6,000	
	총 지출액	496,470	학과지출 100,000원 동문회지출 396,470원

작성일 : 1999년 11월 19일

작성자 : 간사 윤은주